

“LAD, 류현진에 최고 오퍼 없을 것”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은 2019년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다저스가 제안한 1,790만 달러에 퀄리파잉오퍼를 수락하며 다저스에 잔류했다.



의 오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류현진이 조금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익숙한 다저스 환경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7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류현진은 올 시즌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질주하며 경력 최고의 시즌을 만들기 일보직전이다. 류현진은 17일 현재 27경기에서 168%이닝을 던지며 12승5패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 중이다. 시즌 막판 부진은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평균자책점 1위이자 사이영상 후보다.

그런 류현진은 올 시즌 뒤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다저스는 원칙상 퀄리파잉 오퍼를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이제 류현진을 잡으려면 FA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류현진과 다저스는 재결합을 할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 다저스 담당기자인 켄 거닉은 일단 회의적이다. 거닉 기자는 최근 '스포티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저스가 류현진에 최고의 장기계약 몸값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류현진이 올 시즌 뒤 FA 시장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류현진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적은 돈을 받더라도 다저스에 남고 싶어 할지는 자신만이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팀

이런 가운데 LA에인절스에 이어 샌디에이고 쪽에서도 류현진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18일 샌디에이고가 2020년을 앞두고 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며 FA 보강, 트레이드 등 각각도에서 선발진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앞서 "LA에인절스는 선발투수가 필요하며, 게릿 콜이나 류현진 등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 선수를 1~2명 보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직 FA 시즌을 논하기는 이르다. 수많은 변수가 있다. 류현진으로서는 가을 무대에서 팀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다저스의 시선은 물론, 시장의 시선을 바꿀 좋은 기회다. 가을 무대에서 진면목을 보인다면 다저스도 류현진을 위해 지갑을 열 것이라 예측이다.

자존심 구긴 미국 농구 "올림픽은 드림팀으로"

15일 막을 내린 2019 농구 월드컵에서 국제대회 역대 최저인 7위에 그친 미국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슈퍼스타 라인으로 최강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종료 후 뉴욕타임스는 커리가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커리 또한 6월 일본에서 열린 팬 미팅 투어 당시 "올림픽을 뛸 적이 없다. 올림픽 경험은 (월드컵 등)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출전 의지를 밝혔다.



는 평가를 받았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2019 농구 월드컵의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역대 최초의 3연패를 목표로 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명단을 꾸리는 것에서부터 여러 압초가 있었다. 애초에 합류가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미국프로농구(NBA)의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나 제임스 하든(휴스턴 로키츠) 같은 슈퍼스타들이 팀 적응을 이유로 차출을 거부했다. 카일 라우리(토론토 랩터스)는 부상으로 낙마했다.

다른 NBA 선수들로 로스터를 구성했지만, 이는 '드림팀'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많이 멀었다. 12명의 로스터 중에서 작년 2018-2019 올스타전을 뛰었던 선수는 단 2명, 켄바 워커(보스턴 셀틱스)와 크리스 미들턴(밀워키 벅스)뿐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8월 24일 월드컵 열리기 전, 호주와의 친선경기에서 패배하면서 2006년 그리스와의 경기 이후 이어오던 78연승이 깨졌다. 이후 이름 값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최약체 대표팀이라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 회복이 절실했다. 이에 도쿄 올림픽에는 NBA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31·골든스테이트·사진)의 합류가 예상된다. 커리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팬 미팅 투어 당시 "올림픽을 뛸 적이 없다. 올림픽 경험은 (월드컵 등)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시즌 토론토를 NB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 카와이 레너드(28·LA 클리퍼스) 등의 합류도 거론되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코비 브라이언트(41), 르브론 제임스(35·LA 레이커스), 드웨인 웨이드(37) 등 당시 슈퍼스타들로 명예회복을 위한 '리딤팀(Redeem Team)'을 꾸려 금메달을 탈환했다.

미국 농구는 올림픽에서 4연패를 노리고 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